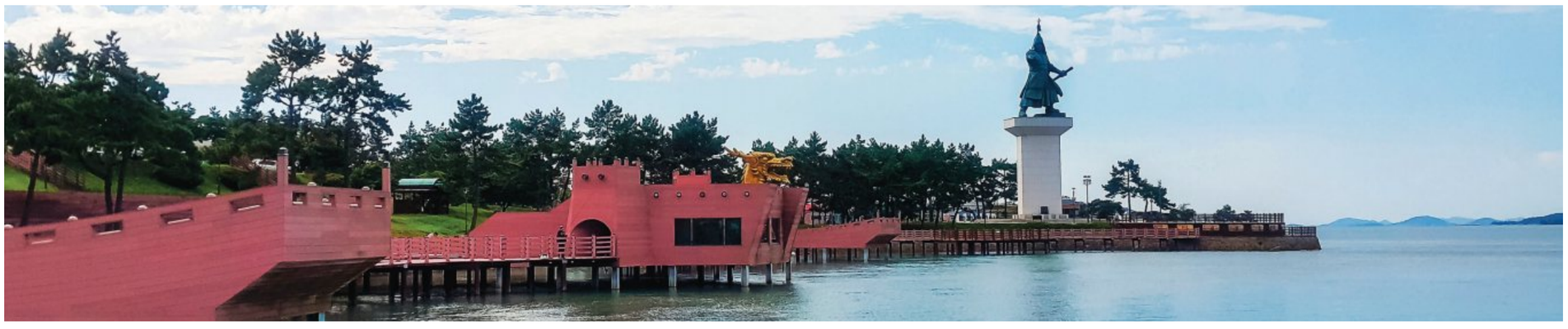
이 땅의 역사를 뒤흔든 인물들의 이야기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땅의 역사 3

박종인 지음



이순신의 명량해전 승리 요인은 하늘이 도운 게 아니라 완벽한 준비 덕분이었다. 진도대교 인근 울돌목에 세워진 이순신 장군 동상. 〈광주일보 자료〉

다음은 누구를 말할까?

'벼슬은 높지 않았으나 문장으로 이름을 떨쳤다. 평안도 도사로 취임하러 갈 때 죽은 기생을 위해 술잔을 올렸다. 단종 복위를 꿈꾸다 죽은 사육신을 토대로 정치판을 힐난했다.'

바로 임제(林悌·1549~1587)다. 그는 죽음 직전에 "나를 위해 곡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의 문중 족보 '나주임씨세승'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다고 한다. '물 오랑캐가 황제라 칭했는데 조선만 홀로 중국을 섬기니 살아서 무얼 하며 죽어서 한이 되리 울지 말라'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흥미롭다. 역사는 사람들 이야기이며,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여 역사를 이룬다.

이 땅의 역사를 흔든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은 '땅의 역사 3'은 역사 속 흥미진진한 인물들을 소환한다. '군상(群像): 나라를 뒤흔든사람들'이라는 부제처럼, 그들은 "자기 시대를 살며 커다란 발자국과 짙은 그림자를 던진" 인물들이다.

저자는 30년 차 여행문화전문기자 박종인이다. 일간지에 '박종인의 땅의 역사'를 연재 중이며 지금까지 '땅의 역사'(1·2), '한국의 고집쟁이들', '내가 만난 노자' 등을 펴냈다.

책을 펴내게 된 이유는 이렇다. "필터로 맑게 걸러낸 '찬란한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 책에서는 그 필터에 남아 있는 찌꺼기들을 보려고 한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거나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은폐됐거나 왜곡돼왔던 참 많은 군상(群像)들의 민낯을 대면하려고 한다."

책에는 조선시대 역사가 등장한다. 폭군 연산군에게 저항했던 시인 어무적을 비롯해 숙종에게 쓴소리를 했다 죽게 된 박태보, 농사짓는 기술 등을 연구했던 서유구와 같은 인물들이 주인공이다.

어무적은 연산군 시대 사람이다. 아버지는 양반이지만 어머니는 관비로, 그는 평생 변변한 벼슬 한 번 못했다. 그러나 문장은 탁월해 동시대 허균에 의해 '동방 제일'이라 평을 받기도 했다.

"사람들아 사람들아 살기 어려워라/ 흉년에 너희 굶을 때/ 나 너희 구하려는 마음은 있으나/ 구할 힘이 없구나/ 사람들아 사람들아 불쌍도 하여라/ 추운 날 이불도 없는 너희들인데/ 저들은 너희 구해줄 힘은 있되/ 구하려는 마음은 없구나"(신용개, '속동문선' 권5, '유민탄')

연산군 시대 백성들의 삶은 비루했다. 절대적인 빈곤, 폭정이 원인이었다. 어무적이 상소를 올려 '근본을 바로 잡고', '여자와 술을 멀리하여 백성들 재물을 넉넉하게 하고'라고 권했지만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였다. 결국 어무적은 관리들을 피해 도망다니다 객지에서 죽음을 맞는다.

전설이 된 행정가 이서구(1754~1825)의 삶은 공무를 수행하는 이들이 한번쯤 되새겨야 할 부분이다. 1793년 이서구가 첫 번째 관찰사를 수행하던 무렵 그는 세금을 거두는 대신 창고를 풀어 구제에 힘썼다. 1820년 두 번째 전라 관찰사로 부임했을 때는 '양전은 백성 구휼을 위함이지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증세를 요구하는 안동김씨 세도정치에 맞섰다.

이밖에 청나라에 인질로 잡혀가 새로운 학문에 눈을 뜨고 이후 조선을 발전시키려했던 소현세자와 강빈 부부를 비롯해 일찍이 서양 학문을 접하고 책을 냈지만 이해받지 못한 홍대용, 엄혹한 사대의 시대에 살면서도 그림을 통해 자기세계를 지향했던 화가 정선의 이야기도 만난다. 또한 완벽한 준비로 울돌목, 명량해전에서 승리한 이순신과 각성(覺醒)이라는 화두를 던졌던 시인이자 독립운동가 한용운의 생애도 접할 수 있다.

저자는 말한다. 책속의 인물들은 자기 시대를 살며 발자국과 그림자를 던졌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과 깊이는 다르다고.

"하루 살기 바쁜 우리네 인생이 어느 짬에 역사에 남을 만큼 소인배적 악을 저지르고, 대인다운 행동을 할 것인가. 다만 우리는 큰 악을 저지른 소인배에 대해 비난할 줄 알고, 큰 선을 행한 큰 사람에게 박수를 보낼 줄 안다."

〈상상출판·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아직 꽃물, 아니 사랑

강현주 지음

지난 2011년 '열린시학'으로 등단한 무안 출신 강현주 시인이 세 번째 시집 '아직 꽃물, 아니 사랑'(현대시학)을 발간했다.

작품집에는 일상에 대한 사랑과 사유, 신앙을 갈무리한 작품들이 수록돼 있다.

"지천명이 되던 늦가을, 봉숭아물을 들이며 층층이 번져가는 꽃물의 추억을 본다. 비명 같은 끝물의 소리를 듣는다. 아직 꽃물이라고, 아니 사랑이라고 서리 내린 하얀 창가에 호호 입김을 불어본다."

'시인의 말'에는 창작집을 펴내게 된 이유 등이 담겨 있다. 전체적인 시집의 주조와 주제의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고향에 대한 애정을 노래한 엿볼 수 있는 작품이 눈에 띈다. 나고 자란 고향이 아니면 쓸 수 없는 시들은 특정한 장소성을 넘어 보편적으로 확장된다.

"피땀 흘려 일하다 보면/ 다 편안해진다고/ 먹고는 산다는 務安// 철마다 고운남산, 연징산, 승달산이 작은 고을을 에둘러 감사고/ 갯길 따라 걸으면 황토 갯벌을 먹은 세발낙지, 해당화 피어나는 해제 유월리 바닷가/ 초록빛 파와 젖가슴같이 보드라운 현경의 황토밭…"('애쓰다 보면 평화' 중에서)

위 시는 무안을 노래한 찬가에 다름아니다.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사랑으로 승화된 작품은 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무안을 생각하게 한다.

허형만 시인은 해설에서 "이 지상에서 자기 자신과 이웃과 모든 생명을 사랑하면서 한 편의 시를 쓰는데 완전히 몰입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평한다.

〈현대시학·1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디자인을 한다는 것

사라 베이더 엮음, 한수지 옮김

디자이너 메튜 카터는 "현대적 안목과 기술이 만들어 낸 매끈한 모습과, 의도적으로 거칠게 연출된 디스트레스트 룩은 종이 한 장 차이다"라고 말했다.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은 비단 디자이너 업계에서만 통용되는 말은 아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다. 실력의 유무는 '종이 한 장 차이'로 갈리는 경우가 많다.

디자인이란 "실용성이 있으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도록 의상이나 제품, 작품, 건축물 등을 설계하거나 도안하는 일"을 일컫는다. 우리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가 바로 디자인이다. 디자인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시대를 초월해 주목할 만한 100여 명의 디자이너들이 전하는 '디자인하는 삶'에 대한 도전과 기쁨, 지혜 등을 담은 책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매력적인 조언들을 담고 있다. 책을 엮은 사라 베이더는 작가이자 편집자로, 각각의 주제들을 통해 디자이너들의 실패와 장점, 역할, 일과 즐거움 사이의 경계 등을 이야기한다.

책에는 "색상표 재사용을 피하는 시모어 쿼스트와 파란색에 의지하는 빔 크라우벨, 공동작업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사라 드 본트와 카린 골드버그, 모방할 것을 권장하는 브루스 마우와 반대로 이에 동의하지 않는 파비앙 바론 등"에 관한 내용이 등장한다.

책은 실용서라기보다 디자인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할 뿐이다. 디자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디자인을 잘할 수 있는지,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소양은 무엇인지 숙고하게 한다.

많은 디자이너의 말도 울림이 있지만 폴라 셰어의 말이 가장 인상적이다. "내 일은 노는 것이고, 실제로 나는 디자인을 할 때 논다."

〈지노·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내 생애 단 한 번

장영희 지음

'삶의 한가운데 서서 당당하고 치열하게 살았던 오늘을 떠올리며 살아가는 일이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기를'

번역가, 수필가, 칼럼니스트였던 장영희 교수의 첫 에세이집 '내 생애 단 한 번'이 새롭게 출간됐다.

번역가로 이름을 먼저 알렸고 이후 문학 에세이 '문학의 숲을 거닐다'와 '생일', '축복' 등을 펴낸 장 교수는 암 투병을 하면서도 희망과 용기를 주는 글들을 썼다. 그는 마지막으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을 남기고 2009년 세상을 떠났다.

이번에 다시 출간된 '내 생애 단 한 번'은 저자가 월간 '샘터'에 연재하면서 수많은 독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던 글들과 새로운 글들을 묶은 책이다. '생명의 소중함', '희망', '신뢰'를 주요 테마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삶의 소중한 가치들을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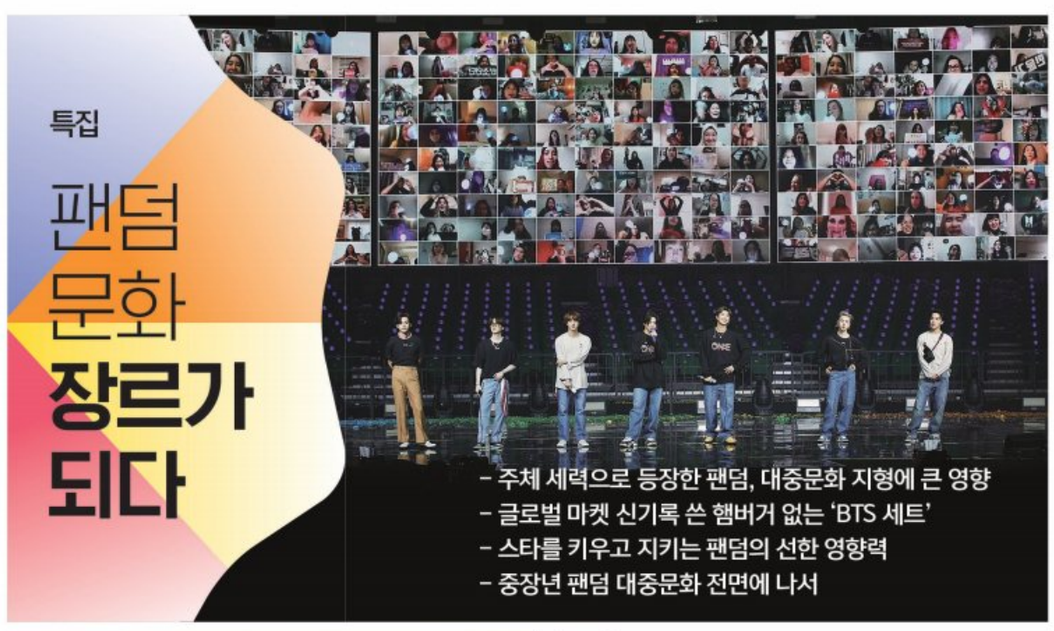
'올해의 문장상'을 받기도 했던 책에는 '무미건조하고 습관화된 삶보다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열심히 해야 제맛'이라는 저자의 평소 인생관이 묻어난다.

책은 '아프게 짝사랑하라', '막다른 골목', '더 큰 세상으로', '그러나 사랑은 남는 것' 등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됐으며 일상에서 건져낸 경쾌하고 참신한 맛의 글들로 바쁘게 살아가며 잊고 지냈던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다. 또 계속되는 힘겨운 상황 속 희망을 꿈꾸기 어려운 시기지만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살 만한 곳이라는 것을 일깨워 준다.

저자는 아울러 부족함을 불평하기 좋아하고 팍팍한 일상에 매몰된 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성과 성찰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잊고 있던 메시지를 전한다.

〈샘터·1만5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화제의 전시-이건희 컬렉션 광주·서울전
'기다려왔던 국보와 명작'
이건희컬렉션과 설레는 만남

예향이 만난 이 사람
첫시집 펴낸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시인 진혜진

예향 초대석
우리 역사 '아픔' 주목한 그래픽 노블 작가
김금숙
"영웅보다 소소한 삶이 더 다가와요"

로컬 문화현장-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생명의 기운 넘실대는 김병종의 화폭

여름기획-전시·자연에서 힐링
전시로 힐링
제주 빛의 벙커에서 '지중해로의 여행'전

자연에서 힐링
가슴 탁 트이는 전남여행지 Best 5

클릭, 문화현장⑳
한해 수십 만 명 찾는
김유정문학촌

문화를 품은 건축물⑫
신사실파 거장의 따뜻한 '집' 백영수미술관

광주일보·'새말새몸짓' 공동기획
철학자 최진석과 책 읽고 건너가기(完)
류성룡 '징비록'

문화 바이러스 퍼뜨리는 예술단체⑤
친절한 피아노 3중주팀 '트리오제트'

조현영의 클래식, 영화를 만나다②
영화 '작은 아씨들'과 베토벤의 '비창'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산사를 가다③-통도사

부처님의 진신사리 모셔진 '불보사찰'